

중앙 시평



柳錫春
연세대 교수
사회학

또다시 진학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요즘의 입시는 매우 복잡해 수험생이 없는 가정은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기 정말 어렵다. 수험생이 있어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복 지원등 기회 많아져

새 입시제도는 우선 대학 진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한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6월에 정원의 10%, 9월에 정원의 25%, 그리고 1월에 나머지 65%를 각각 선발한다.

또한 선발하는 기준도 이 세 번의 기회가 서로 다르다. 6월에는 출신 고등

학교의 학생부 기록이 절대적이고 면접 결과가 보조적인 자료다. 9월에도 6월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록과 면접 결과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11월에 치르는 수능 성적에 대한 조건이 붙는다. 마지막 1월에는 수능성적이 절대적이고 논술 등의 보조자료가 활용된다. 물론 이러한 여러 단계의 선발에서 수험생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진학을 염두에 둔 개별 학생의 입장에서 이 새로운 제도는 분명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이 한 순간의 평가에 따라

거나 아니면 '탈락'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대학에는 붙고 저 대학에는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복수의 기회가 보장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제도 역시 문제가 전혀 없는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혹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모두 당락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체능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일

은 제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 그 중에서도 법대와 의대에 진학하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다.

수시모집 선발 쉽지 않아

문제는 이들 문과 및 이과의 일등 1천2백명이 모두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법대와 의대에 각각 진학하고자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들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이다. 법대나 의대의 전체 정원은 고차 2백명 안팎이다. 이 중 정원의 70% 내외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는 다행히 수능이라는 공통의 척도가 있어 수험생의 상대적 능력을 변별할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정원의 약 30%, 즉 60명 내외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에 전국의 내로라 하는 일등 1천2백명이 모두 지원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들을 일선에서 지도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과연 존재하는가.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고 하지만 대학인들 무슨 뽕족한 방법이 있겠는가. 결국은 해당 대학에 진학한 과거 입학생의 성취를 기준으로 각각의 고등학교를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결국 평준화는 불가능한 일이다.

새 大入제도 문제없나

'전부 아니면 전부(all or nothing)'로 판가름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입시는 본고사 혹은 수능이라는 단 한번의 기회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학이 어려운 대학'은 물론이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대학'과 '상대적으로 진학이 용이한 대학'을 모두 선택해 동시에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수험생에게는 항상 이분법적인 결과가 강요되고 있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시의 결과는 항상 특정대학에 '합격' 하

반계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약 1천2백개 정도 존재한다. 즉 전국적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일등을 하는 학생이 모두 1천2백명 정도 존재하는 셈이다.

과연 이 1천2백명은 입시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각 학교의 일등은 당연히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문과의 일등은 법대, 그리고 이과의 일등은 의대를 선호할 것임에 틀림없다. 수험생 본인의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이나 교사의 입장에서든 공부 잘하는 자식이 혹